

‘우여곡절’ WBC 엔트리 28명 확정

‘음주 물의’ 강정호 탈락·오승환 합류... 12일 日 캠프행
24일 고척돔 훈련... 25~26일 쿠바·28일 호주 평가전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태극전사' 28명의 엔트리와 평가전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7 WBC 최종엔트리 제출마감일인 7일 WBC 조직위원회(WBCD)에 28명의 참가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28인을 확정하는 데 많은 진통이 있었다. 대표팀의 터줏대감인 SK 좌완 김광현과 한화 내야수 정근우 등이 부상으로 빠졌고,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WBC 참가가 불발됐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KBO 징계를 받은 오승환(세인트루이스)은 논란 속에 대표팀의 마무리로 서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선수단을 구성한 대표팀은 오는 11일 서울 리베라호텔에 모여 공식 개편을 시작한다. 선동열, 송진우, 김동수 코치와 함께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차우찬·임정우(이상 LG), 원종현·김태균(이상 NC), 김하성·서건창(이상 넥센), 손아섭(롯데)·장시환(kt), 박희수(SK) 등은 10일 귀국, 대표팀 소집에 응한다. 소집일인 11일 오후 5시에는 호텔 2층 샤모니홀에서 김인식 감독과 선수 2명이 참가하는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대표팀은 12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합동 훈련에 돌입한다. WBC 대표팀의 오키나와 캠프는 오는 22일까지 오키나와 구시카와 구장에서 진

행된다. 세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감각 점검에도 나선다. 연습경기는 19일 요미우리 자이언츠(나하 셀룰러 스타디움), 21일 LG 트윈스 퓨처스(구시카와 구장), 22일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기노와 구장)와 3경기가 치러진다. 한국으로 복귀한 이대호는 소속팀 롯데 에리조나 캠프에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변경, 오키나와에서 일주일 정도 대표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 예정이다. 23일 귀국하는 대표팀은 24일부터는 예선 A조 경기가 열리는 고척 스키야드에서 훈련을 시작한다. 25·26일에는 쿠바, 28일에는 호주와의 평가전을 갖고 경기력을 평가한다. 경찰 야구단, 상무와도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대회 개막에 앞서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다. ◇2017 WBC 국가대표팀 최종 엔트리 ▲투수(13명): 임창용·양현종(이상 KIA), 차우찬·임정우(이상 LG), 유규민·심창민(이상 삼성), 이현승·장원준(이상 두산), 장시환(kt), 원종현(NC), 박희수(SK), 이대은(경찰) 오승환(세인트루이스) ▲포수(2명): 양의지(두산), 김태균(NC) ▲내야수(8명): 김재호·오재원·허경민(이상 두산), 서건창·김하성(이상 넥센), 박석민(NC), 김태균(한화), 이대호(롯데) ▲외야수(5명): 최형우(KIA), 이용규(한화), 손아섭(롯데), 민병현·박건우(이상 두산) /김여울기자 wool@



이용대(왼쪽)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이용대 요넥스 베드민턴팀 입단식에서 하태권 감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잠 푹 잘수 있어 너무 좋다”

이용대 요넥스 입단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까?라며 복귀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가대표 은퇴 후 중국리그와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경기했다. 이들 외국에서는 베드민턴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엄청난 베드민턴 열기는 이용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부러울 정도로 체육관 시설이 마케팅, TV 광고 등이 너무나 잘 돼 있었다. 또 많은 팬이 체육관에 찾아와 주셔서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다. 더 오래 운동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다”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이 베드민턴을 좋아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또 푸아이핑(중국), 헨드라 세티아완(인도네시아), 탄위키옹(말레이시아) 등 같이 해보고 싶었던 선수들과 복식 호흡을 맞출 수도 있었던 것도 좋은 추억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해외 리그에 참가하겠지만, “국내 리그 참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베드민턴협회는 올해부터 “코리아리그”라는 베드민턴 리그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척척산중’ 강정호

음주뺄소니 재판 두차례 예상... 시즌 일정 차질 불가피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현재 가장 앞날이 불안한 선수는 어쩌면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일지도 모른다. 성적 부진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선수는 실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면 되지만, 음주뺄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를 둘러싼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음주뺄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를 해서 양형을 다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됐고 재판부도 새로 배당됐다”며 “아직 일정이 잡히거나 의미 있는 진행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강정호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정호는 2번 정도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에서 강정호가

‘탄탄대로’ 오승환

ML ‘파워랭킹’ 불펜투수 중 4위... 추신수 외야수 74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가치를 불펜 투수 중 4위로 평가했다. MLB닷컴은 7일 메이저리그 선수 820명의 ‘파워랭킹’을 2017시즌 예상 성적과 판타지 게임에서의 가치로 순위를 정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오승환은 “재능 넘치는 오른손 투수는 마무리로 풀 시즌을 충분히 치를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불펜 투수 중 4위, 전체 투수 중 19위, 투수와 타자를 포함한 전체 선수 중 61위에 이름을 올렸다. 팀에서는 단연 1위였다. MLB닷컴은 자체 성적 예상 시스템을 적용해 오승환의 2017시즌 성적은 3승 4패, 41세이브, 70이닝, 87탈삼진, 18볼넷, WHIP(이닝당 출루 허용) 0.97, 평균자책점 2.44로 전망했다. 오승환은 6일 MLB닷컴이 ‘슈레더’라는 자체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 발표한 포지션별 최고 선수 순위에서는 불펜 7위에

우즈, 끝난거니

복귀 후 두 차례 대회서 컷 탈락·기권... 17일 제네시스 오픈 출전 장담 못해

돌아온 옛 골프황제 우즈의 복귀 시나리오가 꼬였다. 엄청난 기대 속에 투어 대회에 등장했지만 불과 2차례 대회에서 컷 탈락과 기권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은 의구심으로 돌변했다. 우즈는 지난 3일 유럽프로골프(PGA)투어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2라운드에 앞서 허리 통증을 이유로 기권했다. 1라운드에서 버디 하나 없이 보기만 5개를 적어내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뒤였다. 우즈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했다. 2015년 8월 원년 챔피언십 이후 17개월 만에 출전한 정규 투어 대회였다. 한 달 전 이벤트 대회인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서 15개월 만에 실전 라운드를 치른 결과 합격점을 받았기에 기대가 높았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컷 탈락했지만 기대는 식지 않았다. 차가운 날씨와 깊고 질

긴 러프, 비에 젖어 느려진 그린 등 여건이 좋지 않았고 실전 감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분석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바이 출전 이후 우즈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게 식었다. 당장 수술을 두번 받은 허리 상태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우즈는 1라운드에서 눈에 띄게 허리가 불편한 모습이었지만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아픈 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권을 선언한 뒤 우즈의 에이전트는 “저녁을 먹고 나서 허리에 이상을 느꼈다”면서도 “수술 받은 요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17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탓에 생긴 일시적인 통증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우즈는 2008년 US오픈에서 무릎 연골이 파열된 상태로 연장전까지 치렀다. 승부 근성이 남다른 우즈가 투어 복귀를 서둘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즈의 허리 부상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즈는 지금까지 9차례 기권했다. 기권 사유 5번은 허리 통증이다. 이 때문에 우즈의 재기가 힘들다는 비판마저 고개를 들었다. 우즈는 당장 오는 17일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오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타이거 우즈 재단은 이 대회 운영을 맡았다. 대회 호스트가 우즈다. 이미 출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언했다. 우즈의 에이전트는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기권 이후 “우즈는 제네시스오픈과 이어지는 혼다 클래식에 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언론에 말했다. 하지만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우즈의 허리 상태와 투어 복귀 일정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